

<본 자료는 공시사항으로 공시확인 후 기사검토 부탁드립니다>

[에이디테크놀로지, 2018. 3Q 실적 발표...“영업이익을 13.2% 달성”]

2018. 3Q 매출 219억 원, 영업이익 29억 원... 전년비 190%, 2,527% ↑

- ▶ 2018.3Q 누적 매출 746억 원, 영업이익 70억 원... 영업이익을 9.3% 달성
- ▶ 모바일 부문 개발 매출 증가 및 양산 지속 증가로 실적 쾌속 성장 이어질 전망

<2018-11-12> 에이디테크놀로지가 수익성을 지속 강화하며 3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갔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에이디테크놀로지(200710, 대표이사 김준석)가 2018년 3분기 매출 218억 9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190% 급증한 수치다. 2018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은 746억 4천만 원으로 2017년 동기 매출이었던 322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3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8억 9천만 원, 29억 6천만 원을 기록해 전년비 각각 2,527%, 1,544% 상승하는 등 네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회사측은 “올 3분기에도 외형성장을 이어가는 동시에 수익성도 크게 높아졌다”며 “모바일용 메모리컨트롤러 IC 양산이 지속되고 있어 연속성 있는 실적 증대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산 매출 증대와 함께 개발 부문에서도 UFS 3.x 메모리컨트롤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UFS 3.x은 모바일용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UFS의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UFS 2.0 대비 전송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차세대 메모리 스토리지 규격이다. 특히, 해당 제품이 내년 초 개발 완료된 후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예상됨에 따라 대량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SSD 메모리컨트롤러 IC 및 5G 통신 IC와 더불어 2019년 에이디테크놀로지의 지속성장 동력이 되어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에이디테크놀로지 김준석 대표이사는 “고객사의 양산 수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발 완료 신제품의 양산이 본격화되었고, UFS 3.x 메모리컨트롤러 관련 개발 프로젝트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성장 곡선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네 자릿수 매출을 달성하고, 나아가 4차 산업 관련 분야 개발 지속과 양산 확대로 지속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참고자료]

<에이디테크놀로지, 2018년 3분기 실적>

단위 : 억 원

	2017.3Q	2018.3Q	YoY(%)	2017.3Q 누적	2018.3Q 누적	YoY(%)
매출액	75.5	218.9	189.9%	231.4	746.4	222.6%
영업이익	1.1	28.9	2,527.3%	(4.1)	69.5	흑자전환
당기순이익	1.8	29.6	1,544.4%	(1.0)	75.7	흑자전환

☐ 자료문의 : 에이디테크놀로지 유동희 차장 (031-776-7574)

IR큐더스 한정선 매니저 (010-3686-2279) / IR큐더스 윤지희 책임 (010-7139-5888)